



뉴스 미디어 창업 시대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 요청 : 저널리즘과 사회 변동의 관계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유용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이 글은 뉴스 스타트업 등 미디어 창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 혁신과 변동에 기여하는 저널리즘 실천 이념과 가치를 프래그머티즘 철학에 근거하여 재모색하는 논의를 제공한다. 이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사회 변동을 보다 프래그머티즘적이고 연행적인 모델을 중심으로 접근할 이론적 요청에 놓여 있다. 레거시 저널리즘 안팎에서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저널리즘적 실험은 인식론적 저널리즘의 경직된 본질에 얽매어기보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저널리즘이란 도구적 맥락을 적극 껴안음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 만들기에 기여하는 저널리즘의 내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프래그머티즘이 저널리즘에 제공하는 함의다. 이 글은 특히 현대 철학에서 프래그머티즘 전통을 계승한 로티의 네오-프래그머티즘 논의를 밑거름으로 삼았다.

KEYWORDS 프래그머티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매체 창업, 사회 변동, 스타트업

* eudemonia38@naver.com

1. 서론

전통 신문 산업의 위기 지속과 함께 뉴스 산업은 점점 덜 매력적인 비즈니스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최근 뉴스 산업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진원지는 가령 뉴스 스타트업 같은 미디어 창업 트렌드를 들 수 있다. 뉴스 스타트업이나 저널리즘 창업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는 논의도 거의 없어¹⁾ 그 범위와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레거시 미디어 외부에서 저널리즘 실천을 꿈꾸는 이들 뿐만 아니라 성공 가치가 있는 신성장 분야를 찾아다니는 투자 자본 모두에게 뉴스 스타트업 분야가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저널리즘의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에서 경험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일부 성공 사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과거 상업 언론의 태동기부터 인터넷 등장 이후 저널리즘 전반에 위기가 닥친 시기까지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던 저널리즘 창업주의 혹은 창업 저널리즘 논의도 재주목 받는다 (Prenger & Deuze, 2017; Singer, 2017).

뉴스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주목과 기대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같은 일부 미디어 선진국 상황에 기초한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 뉴스 스타트업 분야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그 성공 가능성에 극히 회의적인 시각까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뉴스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목은 대안 미디어 실천이나 창업 문화 확산 등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뉴스 스타트업에 대한 주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1) 박대민(2017)은 “뉴스 스타트업을 스타트업이면서 뉴스 미디어를 다루는 조직”으로 “뉴스 미디어에 대한 고유 가치 제안을 담은 비즈니스 모델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검증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뉴스 스타트업이 전통 언론과 같은 퍼블리셔인지 혹은 플랫폼인지, 뉴스만 다루는 미디어 조직인지 아닌지, 뉴스를 포함하는 스타트업이면서 뉴스가 주된 서비스인지 아니면 부적 서비스인지 등도 분명치 않아 뉴스 스타트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접목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저널리즘 모색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추세다.

뉴스 스타트업에 대한 주목은 현재 저널리즘 위기 돌파의 새로운 모델로서 뉴스 스타트업을 바라보려는 경제적 산업적 관점이나 신기술이 저널리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와 같은 기술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저널리즘적 가치와 공적 효용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계기를 제공한다. 실제 스타트업 분야는 태생부터 비영리 분야나 사회 혁신²⁾을 위한 실천에 적극 도입되면서 발전했다(박희석, 2018). 가령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경제 같이 시장이나 정부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시도한다.

뉴스 스타트업이 갖는 새로운 저널리즘적 가치나 의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는 저널리즘 연구로 하여금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산업적 경제적 혹은 기술적 접근을 뛰어넘는 보다 광범위한 질문을 요청한다. 뉴스 스타트업을 통해 실천되는 저널리즘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 어떤 실천 이념이나 가치를 토대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생산적인가? 사회 혁신을 위한 뉴스 스타트업의 저널리즘 실천은 전문직주의 레거시 저널리즘과 어떤 차별성을 갖거나 혹은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회 혁신과 저널리즘이 관계 맺는 기존 방식과 그 결과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이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저널리즘 장이 어떠한 실천 이념과 가치를 통해 인도돼 왔으며 그 결과 한국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발휘 혹은 제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는 새롭게 출현하는 저널리즘적 실천과 사회 혁신이라는 관계를 이론적으로 전망할 방법은 없다. 물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저널리즘 담론’에 대한 분

2) 이 글은 사회 혁신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사회) 혁신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낡은 제도, 관행, 문화를 개선하거나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실천, 관행, 문화를 아우르는 상식적 의미에서 쓰고자 한다.

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더듬어 볼 수도 있다.

이 글은 한국 저널리즘이 사실, 객관성, 진실 추구라는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저널리즘의 이념적 토대와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뉴스 전문직주의라는 허약한 프로그램에 매몰된 결과 저널리즘의 가치와 효용은 다분히 빈약하게 이해되고 상상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여의 방식과 내용을 둘러싼 담론의 폭과 깊이는 빈곤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뉴스 스타트업이 실천하는 저널리즘의 근간을 고민한다.

역사적으로 한국 저널리즘은 한편에서는 산업화된 조국 만들기를 위해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된 조국 만들기를 지향하는 과정, 즉 하나의 한국을 상상하는 두 서사가 치열하게 싸워온 과정에서 상호 적대적이고 배타적이면서 근본주의적인 담론적 실천에 열정적으로 개입해 왔다. 한국 저널리즘이 사회 혁신에 관한 담론에 대응한 방식이나 문화도 크게 다르진 않다. 사회의 낡은 제도, 관습, 문화의 개조를 위한 사회 혁신 사례들은 빈번하게도 이념을 둘러싼 정치화된 담론 투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널리즘의 역할(론)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기존 맥락으로부터 저널리즘을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뉴스 스타트업 같이 신생 저널리즘 분야가 사회 혁신과 변동에 활발히 기여할 수 있기 위한 저널리즘의 내적 조건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특히 프래그머티즘 철학을 보다 연행적이고 교화적인 방향으로 진전시킨 네오-프래그머티즘 철학에 주목하여 이 작업에 도전한다. 프래그머티즘이란 거칠게 말해 반-정초주의적이고 탈-인식론적인 철학 사고의 전통으로 레거시 저널리즘과의 일정한 차별성을 전제로 시도될 수 있는 뉴스 스타트업의 실천 이념 및 가치와 그 의의를 모색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 글은 우선 한국사회 혁신 담론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탐색에서 출

말한다. 둘째 사회 혁신과 변동을 정당화하는 두 모델 중 논증 모델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연행 모델에 주목할 필요를 검토한다. 셋째 사회 변동의 연행 모델에 부합하는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의 성격과 의미를 논의한다. 넷째 저널리즘 혁신이 걸어온 역사의 의미를 개괄하고 그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프래그머티즘적 의미의 굴절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저널리즘 역사 초기 부흥했던 저널리즘 창업주의의 프래그머티즘적 정신이 디지털 환경 등장 이후 전도된 창업주의로 변질된 맥락을 지적한다. 결론에서는 뉴스 스타트업 같은 저널리즘 분야가 사회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편화된 그림으로써 빈곤해진 저널리즘 담론의 구속으로부터 탈피하여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을 적극 껴안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보다 나은 한국 만들기에 기여하는 연행과 교화의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를 요청한다.

논의에 앞서 두 가지만 덧붙이자면, 첫째, 이 글에서 창업 저널리즘, 저널리즘 창업주의, 저널리즘 창업가주의는 원론적으로 레거시 저널리즘 안팎에서 저널리즘을 기업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현상과 사상을 총칭하는 의미로 모두 같은 의미와 맥락을 공유한다. 단 ‘entrepreneurial’을 ‘기업(가)적’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창업(가)적’이라는 의미로 썼다. 글의 취지가 레거시 저널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뉴스 미디어의 창업을 계기로 하는 저널리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를 고려하였다. 뉴스 스타트업은 기존 레거시 저널리즘 조직 내에서도 다뤄질 수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레거시 저널리즘과는 구별되는 저널리즘 영역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음을 밝힌다. 둘째 이 글은 뉴스 미디어 창업 실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글은 저널리즘과 사회 변동의 이론적 관계를 저널리즘 실천 이념과 가치의 측면에서 순수히 검토하는 데 목적을 한정한다.

2. 한국사회 혁신 담론에 대한 탐색과 함의

1) 외부로부터의 혁신

한국사회에서 혁신이란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출발은 혁신 담론의 중요 사례들에 대한 주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슬러 보면 1990년대 초 문민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사회에 자유화 바람이 불어오면서 출현한 혁신 담론은 가장 먼저 기업과 시장으로부터 큰 각광을 받았다. 당시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라든가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구호들이 대표 사례다.

혁신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을 전후로 외부로부터 불어닥친 거대 흐름에 의해 일정한 굴절을 맞는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흐름이 불어닥치면서 급격히 확산된 혁신 담론 중 강력한 하나는 공공 부문 혁신이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사회 곳곳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공공성 축소, 민간 부문의 자율성 확대, 경쟁·개방·효율성 가치를 우선시하는 질서는 공공 영역은 물론 시장과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혁신은 보편적 가치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혁신 담론의 보편화는 한국사회 개개인들에게도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자기 계발 등 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는 자기 혁신적 사고와 실천은 현대인으로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로 숭상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얼마나 진정으로 내면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지는 답하기 어렵지만 표면적으로 혁신은 한국사회 구성원 누구나 거부하기 힘든 헤게모니적 힘을 갖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기 혁신 담론은 한국사회 외부와의 특수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발전했지만 이후 혁신 담론은 한국사회에 자

발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가령, 행정혁신, 정치혁신, 지방자치혁신, 교육혁신, 시민사회 혁신과 같은 보다 세분화되고 세밀한 혁신 담론들이 단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진화한 혁신 담론의 확산과 발전은 국민의 정부를 뒤이어 출범한 참여정부를 포함,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정부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혁신이라는 단어, 개념,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간략히 돌아 보면 혁신 담론이 한국 사회 스스로의 필요나 성찰을 바탕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기보다 외부의 필요나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주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혁신 담론은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일종의 강압적 요구로 다가온 측면을 어느 정도 포함한다. 이는 혁신 담론이 사회 여러 분야나 영역을 막론하고 일종의 헤게모니와 같은 힘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혁신의 내용이나 방향 설정을 둘러싼 숙고를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주적 노력은 취약했다. 그 과정에서 혁신을 부정하거나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은 규범적으로 비판받거나 공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가와 시장이 추진하는 혁신을 내세운 기획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에 그러한 처벌 기제는 어김없이 작동했다.

2) 위에서 아래로의 혁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지점은 한국사회에서 혁신이란 대체로 거창한 이념적 명분이나 정치화된 서사들과 강력하게 결합되고, 그러다보니 혁신을 통한 사회 개조나 사회 변동의 시도들은 주로 권력에 의하여 입안, 추진되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 혁신이 수평적 소통과 수직적 소통이 결합하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한 기업인이 고백하는 것처럼(임정욱, 2018), 혁신 담론이 대체로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혁신 기획과 실천들 속에서 자리잡아 왔다고 한

다면, 결국 한국사회에서 혁신이란 기존의 권력 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창발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실험과 상상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 게임의 장 안에서 구조되어 적용되는 프레임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론 특히 정론지나 정파지들이 자리잡고 있는 레거시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³⁾

3) 혁신 담론의 특권화와 적대화

사회 혁신의 이러한 프레임의 존재는, 한국사회 혁신이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대화나 토론(그리고 그것을 통해 작동하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이 낳은 결과물로서 수평적으로 공감, 동의,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에 대한 선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채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빈번하게 사회 혁신이 한국사회 실재에 대한 특권화된 설명을 둘러싼 담론적 경쟁의 지속적인 산물로 취급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혁신을 둘러싼 담론 투쟁의 이러한 성격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같은 사회 제도를 다루는 방식과 문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각자의 진영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입각해 사회 전체를 진영화하고, 각자의 진영은 자신들을 선,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복잡함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을 모 아니면 도, 선 아니면 악, 우리 편 아니면 적과 같은 이분법적 레토릭을 수단으로 재단하면서 사회 전체를 양극적으로 진영화하는 정치 문화(강준만, 2013)에서 사회 혁신을 위한 기획들은 과잉-정치화된 공론장 안에서 당파적 지지와 불신의 대상 중 하나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다.

3) 물론, 이러한 시각은 한국사회 혁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감이 있다. 혁신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자율화, 분권화, 탈-중심화 같은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꽃피우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혁신을 통해 조직의 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들은 자치와 자율의 맥락에서도 권장할 만한 일이었다.

이런 과잉 정치화된 사회 문화 안에서 한국사회의 갖가지 혁신 담론은 결국 시도해보기 전에 이미 ‘정답’이 있는 인식론 투쟁의 제물로 전락한다. 과학, 문화, 지식 등 전문 분야가 권력과 정치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의 반복 또한 이를 방증한다. 그러다 보니 혁신을 하려면 혁신적 전문가 혹은 행동주의자(activist)들의 참신하고 용기있는 실천보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통한 정당화가 우선시되는 ‘혁신의 정치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러한 한국사회 혁신 담론의 성격은 한국사회의 과제를 둘러싸고 레거시 저널리즘, 달리 말해 정론을 표방하는 정파 언론들이 벌인 치열한 담론 투쟁을 근간으로 하는 저널리즘 혁신 담론과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한국 저널리즘 담론의 문제와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요구된다.

3. 사회 혁신에 대한 사회 변동론적 이해: 논증인가, 연행인가?

사회 혁신이나 변동을 사회에 대한 일종의 지식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을 통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은 사회나 세계의 본 모습을 밝혀주는, 즉 표상(represent)해준다는 입장이다.

둘째, 프래그머티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은 세상사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대처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부여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어떤 본질이나 진리치 같은 것은 없다는 반-표상주의적 견해다. 이를 혁신의 맥락에 대입하면 전자는 사회 혁신과 지식의 관계를 변화가 필요한 사회적 실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지식의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회 혁신의 담론을 인식론 영역에서 다루게 하고, 그것에 정초주의적(foundational)이고 본질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여한다. 반면 후자는 지식에 대한 표상주의적 입장을 부정함

으로써 사회 혁신과 지식의 관계에 반 정초주의적, 반 본질주의적인 사고를 붙여넣으려 하며, 그 결과 사회 혁신을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형이상학적인 외피로 각자 무장한 담론 투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준다.

서로 대비되는 이들 두 관점 사이에는 사회 혁신과 변동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사회 혁신과 저널리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은 사실과 진실의 추구라는 인식론에 초점이 맞춰진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지향이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지향의 방식과 레거시 저널리즘의 규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존재 가능한 저널리즘의 또 다른 형식들의 사회적 지향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든다.

1) ‘논증’으로서의 사회혁신과 사회변동

표상주의의 맥락에서 지식이나 이론에 근거하는 사회 혁신과 변동은 혁신의 의미를 정당화하는 언어나 담론이 사회 내에서 왜곡되어 있는 실재를 폭로하거나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 믿음에 의의존은 어떤 혁신에 관한 이론적 혹은 합리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혁신의 타당성을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사회 혁신의 보편 타당성을 논증할 수 있는 혁신을 둘러싼 이상적 소통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 전제 하에서 어떠한 혁신이 올바른 것인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둘러싼 합리적 논증이 작동하면 왜곡된 현실을 합리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혁신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에 대한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실현된다(e.g., Habermas, 1983). 혁신의 맥락에서 재서술하면 합리적 재구성은 혁신 기획들이 타당성을 획득하는 조건을 규명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혁신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타당성의 보편적 요건을 생산한다. 이는 지식이 허위와 진실을 판정할 수 있고 한 사회 내에서 어디가 왜곡되었고

어디는 합리적인지를 구별해 줌으로써 합리적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한다고 기대된다(Habermas, 1990: 1996: 2000). 이러한 표상주의적인 지식, 언어, 문화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하는 지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이란 크게 세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사회 혁신에 대한 정당화는 어디까지나 공적 세계에서의 상호적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지 사적 세계의 주관적 선호와 요구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문제들을 정의하고 원인과 조건을 해석하고 그 대안 즉 해법을 찾는 과정은 사회 혁신을 철저히 공적 의미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구되게끔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적 욕구나 문제들에 관계된 혁신의 문제는 사회문화의 합리적 변동에서 중요한 가치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 논쟁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 혁신의 진리치가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다.

둘째, 표상주의의 관점에서 사회 혁신 담론의 기획은 특정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방안 대신 합리성이나 논리와 같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조건을 특정한 혁신 담론이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보편적 선행 조건을 만족하는 사회 혁신의 담론을 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탈맥락적이고 탈역사적이며 보편적인 혁신 담론들이 정당성을 갖는다.

셋째, 표상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혁신은 혁신이 요구되는 공동체에 대한 상호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측면에 관계된 재-정당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그러한 재정당화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 합리적 의무감 같은 요소들이 강조되고 그 결과 공동체는 대체로 사전적으로 정의된 옹고그름이나 합리적·비합리적을 나누는 기준에 의하여 재결속된다. 쿤(T. Kuhn)이 말한 것처럼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는 이미 주어진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된다. 요컨대 표상주의적 혁신론은 사회 혁신을 합리적 논쟁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합의되는 공적 지식이 달리 표현된 것이며 사

회 변동은 이러한 지식이 적용된 결과다. 한마디로 말해 이론이 사회를 변동시킨다.

2) 사회혁신과 사회변동의 프래그머티즘적 이해

이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절대 기준이라면 저널리즘이 할 일은 사회 변화를 주창하는 다양한 담론들 중 어떤 이론이 옳은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근대 저널리즘의 사명으로 등치된다. 그러나 프래그머티즘적 관점에서 어떤 이론이 옳은지 여부는 사회 변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어떤 이론의 참거짓 여부는 실천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판단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혁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답해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프래그머티즘에서 표상주의에 대한 반발과 극복의 맥락에서 다뤄졌다. 네오 프래그머티스트 로티는 표상주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면서 실재를 표상하는 본질적인 능력으로서의 인간 이성 개념을 반박하면서(Rorty, 1979, p.336),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표상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초자연적 진리나 정의의 발견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성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맥락에서 저널리즘이 쓰는 언어는 실재를 비추는 개념적 틀이 아니라 인간, 사회, 환경이 상호작용한 산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라는 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⁴⁾

4) 이러한 맥락에서 진실이나 정의를 판정하는 데 몰입하는 저널리즘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어 버린다. 반표상주의 관점에서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담론만이 참이나 거짓인데도 불구하고(Rorty, 1991, p.32) 저널리즘은 빈번하게 참과 거짓을 말하는 데만 익숙해 있다.

저널리즘은 언어로 사회를 말한다. 반표상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혁신의 정당화는 혁신 담론과 사회적 실재가 정확히 대응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 간의 일련의 정합적 믿음들의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성립할 뿐이다.⁵⁾ 어떠한 혁신 담론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혁신을 둘러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에 대한 정합적 믿음이 승인된다면 이는 잠정적인 진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 혁신을 일종의 지식으로 상정할 때 그 지식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로티는 “언어의 변화가 없이는 도덕적 혹은 지적 진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Rorty, 1991a, p.121), ‘진보’를 ‘혁신’으로 치환하면 필요한 것은 혁신을 위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실재를 정확히 표상해주는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른 무엇이 더욱 강조된다. 로티는 이를 지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이라는 테제로 제시한다.

표상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사회 변동은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일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표상주의에서 사회 혁신을 둘러싼 선택의 문제는 절대적 옳음과 절대적 그름의 선택이라는 당위의 전장으로 맥락화되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논쟁에 처하게 된다. 반면 경쟁하는 선들 사이에서 타협과 조정을 추구하는 반표상주의적 접근은 사회 혁신은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필요와 관심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상주의적 접근은 혁신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원리를 추구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논쟁을 종식시킬 목적의 토론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게 된

5) 이를 로티는 범관계주의(panrelationalism)이라고 말한다(Rorty, 1991, xxiv). 범관계주의는 모든 관계를 떠나 특정 대상이나 인식의 본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대상 자체에 관한 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독립적 즉자 존재에 대한 이해란 불가능함을 뜻한다.

다. 그러나 혁신의 도덕, 윤리, 가치, 이념을 둘러싼 투쟁은 생존을 위한 싸움의 연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혁신이란 것은 사회의 어떤 절대적인 올바른 방향이나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적게 받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일이라는 자유주의적 입장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된다.

반표상주의의 관점에서 언어나 지식의 역할을 이해하는 프래그머티즘에서 사회 혁신은 표상주의적 혁신과는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지식이나 이론은 일상 행위자들이 혁신적인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실천적 도구이지만 동시에/때로 권력적이고 억압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이론은 사회 혁신의 가능성 개방에 요청되는 비판적, 대안적 시각을 억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회 혁신은 선협적인 진리나 이론, 이념과 가치에 의하여 재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둘째 혁신 담론이 공적 영역에서의 효용 추구에만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혁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은 반드시 공적 세계의 의제들만은 아니다. 자아의 발전, 만족의 추구, 정체성 인정을 위한 사적인 의지의 추동이 반드시 공적인 차원에서의 논쟁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공적 영역은 전략적 성공이나 도구적 합리성 같은 기준에 의해 지배받는 반면 사적 영역에서의 자기 혁신이나 새로운 문화 추구는 그러한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유토피아적 담론의 창출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⁶⁾

6) 그러나 프로그래머티즘 철학에서 사적 영역에서의 새로운 사회 변동의 징후들이 공적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로티는 사적 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가능성이 우연히 공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지금까지 적절히 묘사되지 않았던 사회 이슈와 문제를 드러내는 새로운 묘사를 제공하고, 그 결과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

셋째 사회 혁신은 논증을 통하여 추상적인 영역에서 구해지는 이론의 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통하여 혁신의 상상력을 추동하는 구체적인 서술의 창출이 되어야 한다. 지식의 역할도 그러한 서사의 창출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로티가 보기에 표상주의자들의 합리적 논쟁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 문제해결을 위한 옳은 이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보편 화용론(universal pragmatics)을 통해서는 각자의 주장에 대한 묘사와 분류가 반복되는 무한 순환 과정(Rorty, 1997) 혹은 그 순환을 종식시키는 권력의 개입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귀결을 피하기 위해 사회 변동의 지적 토대는 혁신의 보편 지향을 밝히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특수한 취향을 키워갈 수 있는 자유의 부정성(negative of liberty)의 추구에 있다(Rorty, 1995, pp.452-453). 달리 말해 혁신이란 논쟁을 통한 지식과 증명에 입각한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이다. 저널리즘, 미디어, 공론장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오래 동안 전자의 맥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에 반해 프래그머티즘의 진전된 입장에서 보면 사회 혁신이란 사회에 대한 끊임없고, 자유로운 묘사와 재묘사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넷째 프래그머티즘적 사회 혁신은 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보편적 정당화를 거부하고 그 대신 '특정한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래그머티즘은 논리 대신 정서에 주목한다. 혁신이 정당하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혁신에 대한 윤리적 공감이나 의무감이라고 본다면 사회 혁신의 정당화는 보편적 의무감 혹은 보편 윤리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무

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관계가 필연적인 논리나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조건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티의 〈하버마스, 데리다 그리고 철학의 기능들〉(1995)를 참조.

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칸트적(Kantian) 시민 주체를 요청한다. 그러나 공동체 결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정서에 주목한 흄(Hume)의 인식에 근거하여 로티는 사회 변동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과 정서의 공유에 있다고 본다. 로티에게(Rorty, 1996, pp.48-49) 혁신이란 감성에 대한 호소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 속의 동질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3) '연행'으로서의 사회혁신과 사회변동

사회 변동에 대한 프래그머티즘적 입장은 사회 혁신의 논리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논증 모델과 구별되는 사회적 연행의 성공과 실패를 중심에 놓고 사회 혁신을 사고하는 연행 모델을 문화변동에 대한 설명을 위한 이론적 토대(e.g., Alexander, 2006, pp.29-90)와 맞닿아 있다. 알렉산더는 현대 사회에서 행위자들의 집합 행동은 점점 자신들의 이유를 연행할 기획들을 상상하고 만드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실천이 갖는 연행적인 외양(performative cast)에 주목한다(Alexander, 2006, p.51). 그는 사회적 성공은 성공을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변하는 상대성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연행의 보편적 성공이란 성립하기 어려우며 연행의 성공 여부는 특정 연행의 당사자가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징적 의미를 수용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연행이 사회혁신과 변동(문)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연행의 성공이 곧 새로운 세대의 필요나 욕구 충족 그리고 그 충족을 가능케 하는 사회 질서 변화의 모색에 부합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행은 한국사회의 혁신 담론에 특히 생산적인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 사회적 연행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탈맥락화된 진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사회 변화를 위한 지식 혹은 지성은 실재를 드러내는 모형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모형이다(Rorty, 1990, p.643). 이러한 모형은 사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을 자극한다. 사회 혁신을 위한 논증 모델은 수사적, 정서적, 연행적 요소들을 배제한다(Alexander, 1994, p.78, p.80). 이는 당대의 정당화 맥락에서 억압되어 있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들에 대해 깊은 회의를 제공하지만 프래그머티즘은 그 반대를 말한다(Rorty, 2010).

인식론을 기반으로 지식을 창조하는 저널리즘을 완성해야 한다는 식의 저널리즘 담론은 극복의 대상이다. 요컨대, 로티(Rorty, 1996b, p.26)는 사회 변동과 지식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래그머티스트들은 전통적으로 지식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 사회적 희망을 대신 채워 넣길 원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 혁신이 지식 뿐만이 아니라 희망에 주목해야 하며 저널리즘과 사회 변동의 관계를 지식을 추구하는 인식론적 활동의 단차원에 속박시켜서는 논의할 것들이 별로 없음을 시사한다. 표상주의 혁신론 안에서 언론과 저널리스트가 할 일은 사회가 어떤 조건과 어떤 난관과 문제에 처해 있던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가령 공정성이나 객관성과 같은 자유주의적 미디어 규범들 말이다.

임상원(2017, 30-31쪽)은 자유주의 사회가 정착되던 초기부터 발전한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의 관행은 필수적이었지만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와 저널리즘 환경에서 표상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전통 저널리즘은 지나치게 일원적이라고 평가한다. 이 말은 저널리즘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들이 대단히 빈곤하다는 평가와 다름 아니다. 사실과 진실의 인식론적 추구에 저널리즘이 너무 속박되다 보니 저널리즘에 대한 담론은 사실과 진실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맥락 말고는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여를 모색하는 방식 또한 저널리즘의 불완전한 인식론적 능력과 그 능력을 제약하는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적 조건에 대한 이상적 정상화라는 이론적 파라다이스만 남는다.

4.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의 성격과 가치

듀이(Dewey, 1927)는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 할 일은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행동을 검토하고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를 살피는 일이지 행동의 가설적인 원인을 설정하고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프래그머티즘적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를 형성해가는 일은 어떤 원리의 발견이 아닌 국가를 만들어가는 실험을 끊임 없이 조직화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듀이는 이념, 이론, 지식 같은 것들 모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도구주의와 실험주의, 창조적 지성⁷⁾, 보증된 주장 가능성과 같은 프래그머티즘적 개념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훗날 로티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듀이의 사상에서 핵심은 순수한 이론 그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제나 실천을 전제하는 이론과 실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중심에 놓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Dewey, 1888).

듀이적 관점에서 프래그머티즘과 같은 ‘철학적 이론’이나 ‘저널리즘’이나 모두 문제 해결의 유용성이라는 기준 위에서 평가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은 프래그머티즘적일 수 있다(임상원, 2017, 235쪽).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 둘 다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관념을 지지한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나 다양한 사회적 실험과 상상이 보장되는 프래그머티즘적 사회 모두 자유의 공동체라는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 모두 자유주의 사회를 가꿔가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화합한다.

7) 듀이가 말하는 창조적 지성이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규명해주는 지성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저널리즘이 프래그머티즘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저널리즘의 몇몇 모습들은 충분히 프래그머티즘과는 거리가 멀다. 독자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저널리즘은 스스로 계몽된 시민들에 의하여 조롱받거나 비판받으며, 기성 언론이 생산한 뉴스들은 뉴스 소비자들의 지성에 대한 반발감에 도전 받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기자 집단의 권위와 사회적 신뢰는 과거에 비해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 (Carlson, 2017).

이와 더불어 사실, 진실, 객관성, 공정성 같이 저널리즘을 감싸는 근대적 개념들을 둘러싼 논쟁과 회의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러한 논쟁과 함께 지속되는 '저널리즘 위기 담론'은 저널리즘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회의와 냉소,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저항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까? 달리 말해 저널리즘의 프래그머티즘적 가치와 효용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의 위기와 관련한 이러한 현상들의 지속은 현대 저널리즘을 떠받치는 실천 이념과 가치의 정당성을 재모색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바꿔 말해 저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서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레거시 저널리즘, 주류 저널리즘,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프래그머티즘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기획은 대안 미디어나 대안 저널리즘 혹은 저널리즘의 여러 상이한 모델들에 대한 모색을 통해 이미 다양한 형식으로 실천되어 왔던 일이다.⁸⁾ 아마도 그것은 주류 저널리즘 안에서 시도된 참신한 저널리즘적 실천 사례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여기서는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의 실천적 요소들을 검토함으로써 저널리즘의 프래그머티즘적 의의와 가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⁹⁾

8) 그 역사적 맥락은 이 글의 5장을 참조.

9) 임상원은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에서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을 지식 대신 회

1) 지식 생산 패러다임으로부터 저널리즘의 확장 혹은 일탈

저널리즘의 가장 보편적인 기본 원칙이 사실과 진실의 추구(Kovach & Rosenstiel, 2008)라면, 저널리즘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은 혁신과 관련한 사실과 진실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답하기 간단하지 않으며 탈 사실(post-truth) 시대에 사실과 진실의 분별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회적 삶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회는 저널리즘 같은 사실과 진실을 공급하는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회가 사실과 진실을 필요로 한다라는 인식과 사회 혁신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다거나 해야 한다는 말은 상이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 변화와 저널리즘의 관계에 큰 차이를 제공한다. 그 차이는 사실과 진실이 갖는 도구적 성격에 대한 프래그머티즘적 이해로부터 가능하다. 프래그머티스트들은 사실과 진실의 필요성을 목적 대신 도구로 이해한다. 사실과 진실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삶의 도구라는 관점을 통해 그것들을 목적론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빠지는 함정을 피하고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할 수 있을까? 같은 미래지향적 삶¹⁰⁾을 향해 가는데 쓸모 있는 사실과 진실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게 해준다(Rorty, 2006).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사실과 진실이라는 맥락은 사실과 진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저널리즘의 인식론적이고 일원론적인 정의 안에서는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 대신 사실과 진실의 도구적인 가치는 수단으로서의 저널리즘

망, 반 토대주의적 객관성, 저널리즘의 진부성, 프래그머티즘과 문화연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네 차원·맥락으로 구분해 검토한 바 있는데, 이 글의 제3장은 임상원의 논의를 상당 부분 참고했음을 밝힌다. 참고로 국내에서 프래그머티즘 철학과 저널리즘을 연관시키는 논의는 임상원 외에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미디어 연구 전반으로 확장시켜 봐도 프래그머티즘 철학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접목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언론학 연구가 당대 사회의 구성성에 관련된 인문적 사고와 접목될 필요를 강조하는 논의(가령, 박진우, 2013)를 유관 사례로 볼 수 있다.

10)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 질문을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할 수 있을까'로 치환한 헤겔(G.W.F Hegel)로부터 끄집어 온 것이다.

이란 은유와 잘 들어맞는다. 도구로서의 저널리즘의 목표는 진리나 이론의 발견이 아닌 쓸모 있는 아이디어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탐구에 있다. 저널리즘은 지식과 이론이 사회를 올바르게 표상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바를 돕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가는 도구라는 말이다.

로티의 사회관은 바로 이 문제의식을 통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철학적 재정당화를 시도한다. 지식의 탐구는 지식 그 자체를 위한 것일 수 없으며 미래에 다가올 사회의 더 큰 행복을 지향하는 수단이라는 위상을 갖는다(Rorty, 1996b). 그는 〈철학과 사회적 희망〉 그리고 〈미국 만들기〉에서 사회 개선을 위해 우선시되는 것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낙관적인 꿈과 희망 같은 것들이라고 강조한다(Rorty, 1999b; 1998).

로티에게 지식이란 어떤 과도기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 언어, 문화, 테크놀로지 그리고 저널리즘 같은 것들 또한 모두 그러한 것이다. 좀 더 나은 사회로의 진보나 혁신을 위한 효율적 도구의 지위에서 진실과 객관성을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희망을 앉히려 했던 로티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상원(2017, 243쪽)은 저널리즘의 역할이나 기능, 정체성과 가치를 ‘지식’이 아닌 ‘희망’의 맥락에서 재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저널리즘에서 합리적인 정보 혹은 지식 추구자 역할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다루려는 사실과 진실의 목적이 사회적 희망과 치료라는 구체적인 기획으로서의 ‘희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로티는 희망은 정당화를 요구하지도 않고 인식론적 지위 혹은 근본적인 근거 혹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2002, p.58).¹¹⁾

11) 로티의 입장이 단순히 지식보다 희망이라는 낭만적 사고를 미학화하는 사고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래그머티스트들의 탈-인식론적 사회 변동론적 입장은 사회 변동에 있어서 지식보다 희망을 우선시함으로써 사회 혁신을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재규정해주는 힘을 갖는다는 데 보다 함의가 있다. 가령 인종 차별의 철폐나 양성 평등에 관한 희망을 지식에 우선시키면 사회 변동에 있어서 이론과 지식의 특권화된 역할은

어떤 사회가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왔던 것들을 당연시하면 안되는 것으로 바꾸고, 그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킬 때 비로소 그것은 공적 영역의 논의 주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진실 같은 개념들의 의미는 미래를 위한 사실, 일상적 삶과 그것의 개선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는 진실, 고정불변이 아닌 항상 열려 있는 진실 같은 것으로 재이해된다. 이는 프래그머티즘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서도 이미 고민되었던 내용들이다.

사회 혁신을 위한 저널리즘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러한 프로그머티즘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성격을 일방적 정보 전달에 치우친 레거시 저널리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시키고 대화의 저널리즘에 주목하게 한다(Anderson et al., 1994). 오로지 저널리즘만이 사실과 진실을 분별하고 합당한 지식과 이론을 판정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저널리즘 전문직은 오늘날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경멸받고 있다. 그러한 저널리즘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대접을 받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널리즘이 말하기에 치중하고 듣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시민적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이 그토록 내세우는 사실과 진실 또한 민주적 대화의 산물이라는 듀이적 관점에서 오늘날 저널리즘의 신뢰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젤리저(Zelizer 1993)가 말한 것처럼 저널리즘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담론적 공동체다. 저널리즘이 말하려는 진실은 저널리즘 공동체가 말하려는 진실이라는 점에서 프래그머티즘적 진실과 저널리즘의 진실은 별반 다를 수 없다. 근대로부터 지속된 지식 생산의 전문

도전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 로티는 <진실과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칸트에 관한 박사 학위논문을 쓴 페루의 지도자가 리마 빈민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교육받지 못한 여자보다 페루가 가진 문제와 페루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Rorty, 김상만, 2015, 225쪽에서 재인용).

화된 제도적 양식으로서의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일은 미래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능 가능한 도구로서의 사실과 진실의 추구에 있으며, 이는 곧 저널리즘이 지식과 진리의 절대적 판정자가 되기보다 사회 변화를 위한 희망을 둘러싼 민주적 대화에 동참하는 프래그머티스트여야 함을 강조한다.

2) 객관성, 저널리즘 그리고 프래그머티즘

프래그머티즘과 저널리즘을 연관짓는 방법은 목적으로서의 객관성을 도구로서의 객관성으로 바꾸는 일이다. 객관성은 현대 저널리즘의 핵심 이념이자 가치로 군림해 왔지만 객관성이 갖는 절대성은 지속적인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실질한 사회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객관 보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질문해 보면, 목적으로서의 객관성은 때에 따라 허무하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은 객관성을 중시한다. 저널리즘이 오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가장 유용하다는 것이다(임상원, 2017). 외부로부터 저널리즘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기제로 고안된 객관 저널리즘의 역사(Schudson, 1981; Tuchman, 1978)는 이를 증명한다.

사회 변동과 저널리즘을 긴밀히 연결시키기 위해서 객관성에 대한 목적론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듀이로부터 로티에 이르기까지 프래그머티즘은 표상주의적이고 실재론적이며 정초주의적인 객관성을 반대한다. 그들은 프래그머티즘이 세계에 대한 정확한 서술의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탈-맥락적이고 맥락-초월적인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인식은 대화보다는 진리를, 실천보다는 이론을 앞세우기 십상이다.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에서 객관성은 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상호주관적 객관성이자 세계와 사회에 대한 서술을 중단시키는 본질과 진리를 보여주는 객관성은 아니다.

사회 혁신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추구되는 사회에 대한 해석

이기 때문에 범관계주의의 맥락 안에서 사회에 대한 끊임 없는 서술-재서술으로 조직된다. 그에 따라 저널리즘은 맥락-의존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언론을 향해 사회 현상과 이슈에 대한 맥락을 알려주길 요청하는 이유도 그렇다.

상호주관적이며 맥락의존적인 객관성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데 익숙한 레거시 저널리즘과는 구별되는 대화로서의 저널리즘이라는 성격을 부여 받는다. 실용주의자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의 목표는 없다. 대신 끊임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만이 있을 뿐이다. 삶은 우연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맥락-의존적인 탐구의 과정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대화도 영원히 수행되는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적 관점에서 대화의 중요성은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공한다. 프래그머티스트적 사회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 지식, 이론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료들이다. 정확한 표상으로서의 객관성은 상호주관성으로서의 객관성¹²⁾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는 공동체 성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타협하기 위한 대화를 위한 객관성이다(Rorty, 1998, p.83).

이는 객관성을 포기하지는 것이 아니라, 탈-토대주의적 사고, 상호주관적 대화, 맥락의존적 탐구의 과정에 객관성을 위치시키자는 것이다. 저널리즘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프래그머티즘적 재-위치짓기는 워드(Ward, 2006)가 말한 것처럼 사실과 가치, 이론, 실용적 관심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에서 객관성의 쓸모 있는 위치를 찾자는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적 객관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인 모든 가치와 관점으로부터 초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실용적 객관성은 관점을 해석하고

12) 그러나 프래그머티스트들이 말하는 상호주관성은 탈-맥락주의적 지식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진영이 말하는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객관성과는 구별된다(Rorty, 1998, 46).

평가하며 적용하는 필수적인 행위들을 검증한다.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실용적이고 목적적인 활동 내에서 합리적인 억제 도구로서 작용한다(Ward, 2006). 저널리즘이 객관성의 추구를 둘러싸고 맹렬히 실천해야 한다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객관성을 실현해내는 것이 아닌(홍원식·이효성, 2016) 사회 변동의 실용적 도구로서의 객관성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일 것이다.

3) 세속적 저널리즘

세속화(secularization)란 종교와 같은 신비화된 가치가 제도와 동일시되던 사회에서 그 둘 간의 연관이 해체됨으로써 신비화된 가치가 권위를 상실하는 과정을 뜻한다. 저널리즘은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태어나고 발전한 것이다.¹³⁾ 저널리즘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저널리즘은 세속성을 초월하는 가치나 이념 혹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널리즘이 인식론적인 논증을 통하여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진리의 획득이나 사회의 실재를 밝힌다는 비-세속성에서 찾는 것이다. 비세속적 저널리즘은 독자, 수용자,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실천 세계에 대한 합리적 재구성을 통하여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숭고성(sublimity)의 저널리즘이다.

비세속적 숭고성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세계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혁신의 세속적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기보다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근거한 이론화의 경향에 치우치게 된다. 언론의 지나친 정파성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저널리즘 현실이 이에 관계된다(이재경, 2008).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는 언론이나 저널리즘의 역할을 사회 비판 그 자체로 맹목화하는 저널

13) 미국 저널리즘의 세속성이 갖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자. 이에 대해 제임스 케리의 논의(Carey, 1997)를 참조.

리즘(Peterson, 2000), 저널리즘의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이처럼 비세속적이고자 애쓰는 저널리즘의 현대적 모습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널리즘은 세속적 혹은 진부한(banal) 것이란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로티에 의해 정면으로 제기되었지만, 그 전에 듀이가 내놓은 질문이기도 했다. 듀이는 스스로를 성취할 수 있는 구체화된 수단의 고려 없이 형성된 이상과 기준은 빈약하고 동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Dewey, 1927). 사회 변동은 세속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야지 추상적이고 선험적인 목표를 가장한 관점으로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실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로티는 당대 미국의 현실에 적용하여, 학계, 저널리즘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론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사회 개혁의 전망과 관련하여 대중의 일상적 고통에 무관심한 채 이론화에 골몰하는 좌파의 현실 도피를 지적하면서, 사회 개혁의 세속성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Rorty, 1999).

이러한 문제의식을 저널리즘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을 향해 요구되는 완결성, 자족성, 엄밀성, 철저성, 무결점 같은 부담스러운 기준들을 조금씩 내려 놓게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레거시 저널리즘이 아닌 영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 비완결성, 비자족성, 그리고 회의주의적인 사고와 습속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 로티는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안이 제기될 때 범주나 원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여러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Rorty, 1996a). 그러한 논쟁은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이론의 성공”이 아닌 “실험의 성공”을 지향한다(Rorty, 1999, pp.270-273).

한국 저널리즘은 세속적이기 쉽지 않은 역사적 조건 안에서 지속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를 거쳐 오면서 저널리즘은 숭고한 것이어야 했다. 일제 치하에서 국민 계몽과 독립의 주창이 요구되었던 시절이나 근대화와 민주화가 치열하게 대

립하는 과정에 저널리즘의 정치적 사명이 절대시되어야 했던 시대도 그랬다(가령, 박용규, 1995). 그런 시대의 저널리스트는 계몽의 담지자거나 정의를 수호하고 대변하는 투사여야 했으며, 저널리스트의 직업적 사명과 정체성은 일면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었다. 때로 저널리스트들은 권력에 수동적으로 대항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권위에 동조하는 등 세속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지속되어 왔다(김민환, 2007; 남재일, 2010; 정태철, 2005). 지금까지 언론 전문직주의는 프래그머티즘적 주체성과 거리가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가 나름대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저널리즘은 더 이상 덜 필요로 하고 덜 적절한 도구가 되고 있다. 대신 저널리즘을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쓰려는 모습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저널리즘 연성화, 뉴스와 비뉴스의 결합, 저널리스트와 시민 경계의 애매모호화 같은 저널리즘 경계의 약화 혹은 붕괴 또한 그러한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저널리즘 스스로 과거의 임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싶다 해도 그러한 저널리즘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통적 저널리즘의 경계를 넘나드는 저널리즘 담론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즉 현재의 저널리즘은 점점 더 프래그머티즘적으로 변모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 저널리즘을 규정하는 틀로는 정당화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저널리즘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그 실험들 중 일부는 새로운 저널리즘적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면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4) 탈-계몽주의

뉴스를 불신하고 저널리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시민문화 안에는 저널리즘이 갖는 계몽주의적 권위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독자를 가르치려 드는 저널리즘, 독자는 틀렸고 우리만 옳다고 고집하는 저널리즘은 종종 독자 대중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널리즘은 근대 계몽주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계몽을 실

천하는 도구이자 제도화된 주체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그 위상은 오늘날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저널리즘의 계몽주의적 성격과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이 사회 혁신/변동론의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리프먼(W. Lippmann)은 일찍이 사회의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전문가들에게 저널리즘을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듀이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기획을 고민했던 리프먼에게 저널리즘은 계몽적이어야 했다.¹⁴⁾ 그러한 저널리즘은 과학, 지식, 진실, 이성과 같은 계몽적 요소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리프먼이 말한 저널리즘은 서구 저널리즘의 발전 과정에서 저널리즘을 설명하는 핵심 사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렇다면 한국 저널리즘과 계몽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강명구(2013)에 따르면, 한국 저널리즘은 국가, 민족, 사회의 변영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정신적 토대 위에서 거듭나 왔다. 한국 저널리즘의 계몽주의가 서구 저널리즘의 그것보다 더 문제인 점은 서구의 계몽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의미하는 반면, 우리의 계몽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끈다'라는 의미라는 점이다(강명구, 2013). 독자를 가르치고 이끄는 한국 저널리즘의 계몽주의적 성격은 특히 엘리트 신문, 정파지, 정론지라 불리는 언론들에게서 특히 더욱 심하다. 언론, 더 넓게 미디어의 계몽성은 일제 식민지 시대 태동한 독립 언론의 시기로부터 유래되어 오랫동안 지속된 특성이기도 하다(백미숙, 2011; 채백, 2008).

이러한 저널리즘이 사회 혁신과 사회 변동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계몽주의적 저널리즘의 특징은 정치 과잉성, 엘리트 중심주의, 위에서 아래로의 국가주의(statism)를

14) 리프먼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사상을 반민주적인 것으로 오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리프먼의 사상이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 속에서 통합되어 있음을 검토하는 섯슨의 논의(Schudson, 2008)를 참조.

지향하는데, 그 결과 '사회적인 것'들이 모조리 제도 정치로 수렴됨으로써 국가 제도 이외의 자율적인 사회 영역인 시민사회와 생활세계조차 제도 정치나 동원적 도구 정치로 끌려 나와 버린다(강명구, 2013). 저널리즘의 계몽-지향성이 폭넓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할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에 복속시키는 역할에 저널리즘을 편향시킨다는 말이다. 사회 혁신이란 생활세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한 미시정치나 친밀성 영역에 대한 주목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저널리즘이 사회 혁신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허용케 하는 상이한 담론 규칙이 작동하는 공론 영역의 창출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분명하다.

계몽주의적 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가 발견한 사실을 독자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저널리즘은 미래를 지향하기보다 현실을 추구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계몽주의 저널리즘을 추구하기보다 보다 대화적이고, 참여적인 저널리즘 그리고 사회 현실을 사회 문제로 정의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를 추구하는 구성주의 저널리즘(Best, 1989)을 쫓는다. 또한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저널리스트가 공동체에 참여하여 독자 시민들과 대화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공공 저널리즘과도 맞닿을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떠오르는 개방, 참여, 협력과 같은 새로운 저널리즘적 가치와도 통한다.

앞서 언급한 대화적, 참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저널리즘 모델들은 대부분 진실과 정의 혹은 가치 판단을 정해놓고 저널리즘을 실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널리즘 내외의 행위자들과의 수평적 상호 작용 속에서 필요한 사실, 필요한 정의, 필요한 진실의 맥락을 추구해 간다. 이런 맥락에서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이 오늘날 더욱 요청되는 까닭은 사회 혁신을 위한 자유의 확보 문제와 저널리즘의 계몽주의가 갖는 연관성의 또 다른 의미에도 있다.

로티는 자유를 돌보면 진리는 스스로를 돌본다(Rorty, 2006)는 주장을 통해 자유라는 가치를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과 진실의 발견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이해함으로써 진리가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방도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에서 탈피할 때, 필요하다면 사실과 진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창출하기 위한 자유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이나 진실을 창출한다는 것은 프래그머티즘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과 같은 값어치를 지닌다. 사회 개선을 위한 비전은 현재의 사실이 아닌 그 사실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 변화의 결과와 관련한 사실이다.

5) 유연성의 저널리즘

사회 혁신이 사회적 실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면 그 실재는 언어로 매개되고 해석되는 것이다. 로티는 우리가 파악하는 실재란 특정 서술 하에 서의 실재라고 말한다(Rorty, 1979, p.378). 이 서술은 역사와 유연성의 잠정적인 산물인데, 그것은 어떤 언어가 지시 대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적 진술들 사이에서 그것들과 갖는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

언어는 본질적인 실재를 표상하는 매개물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혹은 폐기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인과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이는 언어가 속해 있는 역사적, 문화적 조건에 따른 유연적인 것임을 말한다. 로티는 언어란 인간의 창안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쟁적 서술들 중에 무엇이 우리의 목적에 보다 유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 뿐이라고 말한다(Rorty, 1999, p.xxvi). 그렇다면 이러한 프래그머티즘적 언어관이 사회 변동과 저널리즘의 관계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

사회 혁신을 위한 새로운 담론의 창출은 낡은 도구를 대신하여 새로운 도구를 창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Rorty, 1996b, p.45). 새로운 도구가 효과적일지 아닐지에 대한 물음은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우연들의 복합물 일 뿐이다. 즉 언어는 시간과 기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사회 혁신을 위한 저널리즘이란 목적에 부적당한 낡은 어휘를 대신한 새로운 어휘를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재서술에 도전하는 저널리즘일 것인데 그러한 저널리즘은 언어의 우연성을 꾀안아야 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언어를 쓴다는 것이 사회에 대한 저널리즘의 서술로 하여금 잠정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이러한 언어관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하여 로티는 “우리가 최종적인 휴식처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직면했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Rorty, 1999, p.xxii). 언어의 우연성은 잠정적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사실과 진실의 발견을 통한)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지속적인 대화를 지향하게 한다. 저널리스트가 프래그머티스트라면, 그 저널리스트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을 저널리즘의 의무로 삼으며 끊임 없는 대화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점을 알며 삶은 우연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기 때문에 탐구의 과정도 영원히 이어질 뿐이라고 바라본다.

6) 아이러니즘

혁신은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고 사회적 고통이나 피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이다. 그런 면에서 사회 혁신과 저널리즘은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고 그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저널리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딜레마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저널리스트에게 특정한 신념이나 믿음을 강요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 개혁 과제에 저널리스트를 동참시킬 있는 방식은 저널리스트 스스로 어떤 가치나 이념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음 속 깊이 품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저널리스트를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은 저널리즘의 저널리즘적 자율성

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왔다. 정치 권력과 시장 자본이 저널리스트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저널리스트는 순수하고 고상한 양심과 직업적 사명 그리고 직무적 전문성의 힘을 빌려 확실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그러한 토대주의적 아이디어가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프래그머티스트로서의 저널리스트는 최종적 어휘 선택의 기준을 그러한 규준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과 연행하기 위한 재서술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상세히 서술하거나 호소함으로써 혁신이 가져올 편익의 증대를 구체적으로 꾀한다. 이러한 주체가 바로 로티가 말하는 아이러니스트다. 아이러니스트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착화되고 습관화되며 그래서 교조화된 어휘나 서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식화된 태도를 혐오하는 반면 사람들이 미처 모르거나 주목하지 못했던 사회적 고통, 불편함, 문제들을 새롭고 끊임없이 서술·재서술하는 그런 주체다.

아이러니스트가 보기에 사회 진보를 이야기하는 정치적 주체들은 대체로 무엇이든 종합시키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론화에 골몰한다. 그러나 학문이든 저널리즘이든 사회를 총체적으로 통합시켜 주는 이론적 방도는 없다. 혹은 그러한 추구는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를 단일한 비전으로 통합하는 기획을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에 기여하거나 다양한 사적 요구들을 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조정하길 청한다.

아이러니스트는 그 대신 사적 영역의 갖가지 소망들과 공동체 정의(justice)를 구분함으로써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체계와 생활세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혁신적 역할을 담당하길 추구한다. 아이러니스트는 기존 지식이나 권력 그리고 다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휘를 구사하고 역사,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담론들을 재서술한다는 점에서 사회 혁신에 부합하는 주체성을 담아낸다. 상이한 신념과 선호가 무성해지는 현대 사회의

조건 안에서 그리고 상이한 신념과 선호가 수평적으로 조우하는 디지털
소통 환경에서 아이러니스트적 저널리스트는 이미 나타나 왔다.

또한 아이러니스트 개념이 저널리즘에 제공하는 함의는 저널리즘 형
식의 참신화에도 있다. 저널리즘이 사회에 대해 참신한 재서술을 시도하
고 개방된 대화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는 다양한 뉴스보
도나 취재 관행을 실천할 수 있다. 자유로운 광장에서 자유롭게 말하기
위한 도구라면 어떤 것이든 저널리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의
영역에 점점 더 영화, 문학, 대중문화(예를 들어, 예능화된 시사 콘텐츠)
과 같은 상이한 장르들이 침투하거나 '이런 것도 저널리즘인가'하는 반응
을 유발하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 맥락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7) 연대성 그리고 자문화중심성

로티는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에서 사회적 연대(solidarity)에 관
한 프래그머티즘적 입장을 제시한다. 사회 혁신은 혁신을 수용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대'의 맥락을 내
포한다. 로티는 인간의 사회적 연대에 관한 지금까지의 사고는 인간이 갖
는 본질적 인간성이 인간 각자에게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정에 기초했
지만, 인간성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며 어떤 태도나
실천이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시적 교감'의 문제라고 재규정함으
로써(Rorty, 1989), 연대성에 대한 정초주의적 사고를 넘어서려 한다.

이는 근본적인 입장과 관점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
회적 연대를 새롭게 모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저널리즘 측면에서 연대성에 대한 로티의 구상은 보편적 도덕 법칙과 같
은 정초적 발상 없이도 자유로운 개인과 조직들이 공적 실천을 위해 어떻
게 연대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유선, 2014)에 저널리즘이 어떠한 방식으
로 기여하는 것이 유용한 것인가에 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테면 아이러니스트적 저널리스트는 자신이 제시하는 아이디어

가 보편적 진리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것임을 알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서술하는 어휘를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그러한 어휘의 제시가 인간 본성에 근거한 연대에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본성에 근거한 연대의 호소는 입장이 다른 타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론이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국민의 범주에 자신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편적 인간성과 그에 기초한 연대의 호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쓸모있게 기능하기 쉽지 않다.¹⁵⁾ 보편적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연대의 방식보다 어떤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이 현저하게 느껴지느냐 아니냐에 관한 역사적, 우연적 어휘를 통하여 자신과 입장을 같이 하는 연대를 제안하는 것이 자유주의 사회의 보다 성공적인 연대 방식이라는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한 연대의 기능을 갖는다. 그 ‘우리’는 다시 요약하면 본질적 인간성에 합의하는 전체가 아니다. 단일화된 전체¹⁶⁾를 만드느라 저널리즘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은 프래그머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저널리즘 논자들 또한 수긍하는 점이기도 하다. 반면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다수의 다양한 문화들 간의 연대를 창조하는 저널리즘이다(임상원, 2017, 367). 이러한 저널리즘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사회 혁신과 자유로우면서 창의적인 사회 진보라는 맥락에

15) 로터는 이 주장을 위해 미국 프래그머티즘의 요소를 영미 분석 철학, 오스트리아와 독일 논리실증주의와 종합하려고 한 셀라스(W. Sellars)의 “우리-의식”을 통한 도덕적 의무를 분석한다. 셀라스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는 ‘우리-의식’ 틀로 설명되는데, 도덕적 의무, 정언명령적 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 즉 “우리 중 한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가 여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셀라스(1982, p.222)는 사람들은 서로를 ‘우리’ 중 하나로 생각하고 동시에 (보편적 박애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로서 도덕적 관점에서의 공동선에 의지함으로써 공동체, 달리 말해 ‘우리를 구성한다는 것은 개념적 사실이라고 말한다.

16) 한국 언론의 ‘국민 만들기’ 전략에 관해서는 조항제(2017)를 참조.

부합한다.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의 또 다른 가치는 자문화중심성, 즉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에 있다. 자문화중심주의는 근대성 비판의 맥락에서 여기저기서 규범적으로 부정당한 개념이다. 로티에게 자문화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문화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보편적 문화를 통해 자문화를 비판하고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고 더 크고 다양한 '에스노(Ethnos)'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초월할 수 없다(Rorty, 1989).

로티의 자문화중심주의에 대한 강조는 저널리즘과 사회 변동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자문화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분석 노력을 결여한 저널리즘이 사회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이다. 둘째, 첫째 요인의 결과이기도 한데, 저널리즘이 총체적으로 변화된 시스템에 관한 사변에 집중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고대함으로써 현실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개연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념에 근거하여 사회 현실을 반복적으로 재단해온 정파적 레거시 미디어들을 특히 겨냥할 수 있다.

자문화중심성을 로티가 꺼내들었던 이유는 실은 그가 미국의 진보적 이론가들, 특히 그가 '문화 좌파'라고 딱지붙인 진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로티가 보기에 그들은 사회 개혁을 이론을 통해 추구하길 원하고 실제 그렇게 함으로써 소모적이고 관념적인 담론의 재생산에 열중해 있다. 이에 대해 로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Rorty, 1998, p.112): 우리 시대의 좌파는 추상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존 질서를 보다 잘 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개념적 장치가 보다 포괄적이고 기발하면 기발할수록 그 비판은 더욱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병폐들, 이를테면 상품화, 소외, 물신화 같은 현란한 개념/이론들을 말하지만 그런 어휘들

은 그들이 지적한 사회 문제를 극복해 낼 새로운 이미지나 비전을 창출하는 언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내는 미래의 청사진 또한 화석화된 것이다(임옥희, 2003). 지식과 이론 생산 장에 대한 로티의 비판을 저널리즘을 향해 돌려보면 어떻게?

이러한 맥락에서 로티는 “최선은 차선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국민 국가 체제가 갖는 문제들에 대해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 세계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위안도 못 된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이상적인 ‘최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현실적인 ‘차선’을 창안하는 사회적 연대의 조력자들이어야 한다. 그러한 저널리스트들의 언어는 전승에 의해 주어진 우리의 언어 안에 있는 것이다. 자문화에 대한 강조는 또한 저널리즘으로 하여금 사회 혁신의 보편 원리를 찾아내는 데 열중하게 하기보다 쓸만한 대안을 창안하는 데 효율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또한 자문화로서의 ‘한국사회’일 수밖에 없다.

로티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비판하는 사람이 대안을 갖고 있는지부터 질문한다(Rorty, 1989). 대안 없는 이론, 특히 추상적인 이론놀음 이야말로 미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의 눈에 지식생산자들은 자문화를 오로지 비판하고 저주하는 분노의 생산에 그치며 개혁을 위한 실천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로티의 문제의식이 던지는 실천적 함의는 저널리즘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되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5. 전도된 저널리즘 창업주의와 창업 저널리즘의 프래그머티즘적 재부상

프래그머티즘과 저널리즘의 만남은 저널리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

다. 그 만남은 창업 저널리즘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이미 추구되었던 바다. 이는 저널리즘 혁신의 역사라는 맥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저널리즘에서 혁신은 뉴스 혹은 저널리즘을 새롭게하기라는 맥락으로 지속되어 왔다. 저널리즘 창업주의도 저널리즘의 혁신이란 맥락과는 무관치 않다. 기성 저널리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할 필요 속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 저널리즘 혁신이란 저널리즘이란 제도적 존재를 보다 실용적인 것으로 재변모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저널리즘 창업주의는 저널리즘 혁신의 역사 속에서 이미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저널리즘 혁신의 두 가지 역사적 맥락에 관한 프렝게와 듀즈(Prenger & Deuze, 2017)의 분석에 따르면 창업주의는 과거 저널리즘 초기 역사로부터 저널리즘이 상업적, 정치적, 대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구조적 발전의 핵심 열쇠로 매 단계마다 작동했다.¹⁷⁾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관행 또한 그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러한 혁신은 특히 저널리즘의 규범적 의제들과의 연관 속에서 추구되어 옹으로써 역사적으로 특수하면서 동시에 보편화된 저널리즘 모델의 정립에 기여했다. 반면 창업주의의 두 번째 저널리즘적 맥락은 저널리즘의 규범적 의제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저널리즘 혁신과 창업주의 정신이 보다 경영적이고(managerial), 경제적이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다뤄진 역사다.

저널리즘 혁신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사고가 거의 대부분 레거시 뉴스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형성되어 왔다는 점은 미디어 지형이 변화하고 저널리즘의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는 조건에 비춰볼 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저널리즘 혁신을 말할 때조차 제도적인 뉴스

17) 싱어(Singer, 2017) 또한 이러한 시각을 공유한다. 그녀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창업주의라는 것은 미국 저널리즘에서 태어났으며, 더 정확히는 식민지와 본국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전한 인쇄출판 산업의 성장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편집과 생산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저널리즘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Prenger & Deuze, 2017, pp.235-236). 이들은 특히 기존의 저널리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방식으로 출현하기를 원하는 저널리즘을 위해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창업주의에 대한 주목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고 강화되어 왔다. 언론사 소유주는 물론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저널리즘은 보다 기업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뒤따랐다 (Witschge, 2012). 저널리즘을 보다 기업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향은 뉴스 기업들의 조직 구조, 뉴스 생산 관행, 조직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예산 절감, 저널리즘 노동에 대한 복지 삭감, 고용 유연화와 같은 조치들은 저널리즘 기업의 '기업성'을 더욱 강화한 반면, 동시에 저널리즘의 공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효율, 경쟁 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들에 대한 기업 내에서의 강조는 저널리즘 노동의 유연성과 순응성 강화로 연결된다(Storey, Salaman, & Platman, 2005). 이는 심각한 산업적 위기를 직면한 뉴스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문제는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특히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박진우, 2012).

이러한 양상은 저널리즘 상업화의 맥락에서 이미 확인되고 검토된 문제지만, 저널리즘 창업주의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저널리즘의 긴 역사에서 저널리즘 혁신에 기여해 왔던 창업주의가 레거시 저널리즘에서 저널리즘의 상업성 압박, (내부적) 자율성의 침식, 저널리즘 노동의 피폐화 혹은 황폐화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히 저널리즘의 어떤 역사에서 빈번히 발현되었던 '창업가 정신'의 전도된(inverted) 역사를, 실증적 분석을 유보하더라도, 의미할 수 있다. 저널리즘 혁신이나 저널리즘을 보다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최근의 노력들은 시장 주도적 저널리즘의 강화를 야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 프래그머티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거대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험적 역사의 가운

데서 출현했던 ‘프런티어 정신(frontierism)’(Dewey, 1916/1944)과는 전혀 상반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교한 경험적 분석을 뒷받침해야 함에도 시론적 수준에서 ‘전도된 창업주의’는 크게 세 맥락에서 그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레거시 저널리즘 조직에서 뉴스 상업성을 강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창업주의 정신의 전도된 측면이다. 둘째, 디지털 환경 등장 이후 누구나 손쉽게 매체를 창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뉴스 어뷰징, 기사와 광고를 교묘히 뒤섞는 등 저널리즘의 공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 행위에 매몰된 신생 매체 활동의 증대. 넷째, 포털,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정보 매개자들이 뉴스와 저널리즘을 ‘선물 경제’, 즉 미끼 상품으로 삼아 디지털 상의 광고 영향력 증대 등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과정(Fuchs, 2014)에서 나타나는 저널리즘 공적 가치의 훼손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다.

뉴스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불안정해지는 위기들과 더불어 이러한 전도된 저널리즘 창업주의가 야기한 결과는 이미 현장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듀즈(Deuze 2014)에 따르면, 저널리즘 창업가 정신이 저널리즘 기업의 경제적 생존과 이윤 추구를 위한 이념으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저널리스트 종사자들이 레거시 뉴스 룸을 떠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저널리즘 기업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듀즈는 레거시 저널리즘에 비해 보다 적은 규모로(small-scale), 온라인에서만 활동하고(online-only), 독립적인(independent) 저널리즘 창업이 줄을 잇는 것이 21세기 글로벌한 범위에서 나타나는 저널리즘 스타트업 문화(global start-up culture)라고 규정한다.¹⁸⁾

18) 그러나 뉴스 스타트업 사례가 새로운 저널리즘의 추구에 대한 욕구나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저널리즘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간주하고 뛰어드는 이윤 추구 목적의 뉴스 스타트업 사례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저널리즘 창업을 비즈니스 사례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논의들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날디와 피카드(Naldi & Picard,

관련 논의를 참고하면 저널리즘 스타트업이 부상하는 사회적 맥락에 는 크게 세 요인이 작동한다. 첫째 요인은 기존 사회 제도의 비효율과 무 능함에 대한 반작용이다(Witschge & Nygren, 2009). 사회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공적 불신이 커 짐에 따라 전문화된 혹은 개인화된 니치(niche) 미디어들의 출현 조건이 강화된다. 대중이 불신하는 제도들 중에는 레거시 저널리즘 또한 포함된다. 둘째 요인은 낱이 위축되는 저널리즘 시장 환경 하에서 레거시 저널리즘의 균질화(homogenization) 경향¹⁹⁾이 강화됨에 따라, 레거시 저널리즘 조직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의 부상과 연관된다. 셋째, 네트워크론에서 강조하는 전문가의 새로운 유형의 부상이 저널리즘 전문직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²⁰⁾ 오늘날 인터넷에서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는 전문직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허브’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은 다수에게 넓은 지지를 받기보다 특정 분야나 이슈에 고-관여되어 있는 좁은 범위의 시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나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저널리즘적 전문직주의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가치로 외향성(extraversion), 상상(력), 개방성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 같은 개성적 요인들이 주목받는다(Prenger & Deuze, 2017). 그들은 강한 동료적 평판(peer reputation)의 확보를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널리즘적 영향력을 누린다.

이들 요인들은 저널리즘을 보다 프래그머티즘적으로 사고하고 실천 할 가능성과 기회의 부상과 밀접하게 맞닿는다. 미디어 지형에서 그러한

2012), 브루노와 클레이스 닐슨(Bruno & Kleis Nielsen, 2012) 등을 참조.

19) 이는 현재 디지털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저널리즘 혁신 담론의 수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직 혁신에 관한 (신)제도주의 논의에서 언급되는 ‘동형화’ 이론을 참고.

20) 네트워크 사회론에 주목하여 저널리즘 전문직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는 논의로는 라이프(Ryfe, 2012)를 참조.

영향력을 확보하는 몇몇 사례적 저널리스트들은 저널리즘의 보편 규준에 의하여 인정받기보다 그들의 동료들과 자신의 저널리즘 활동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된 평판을 통한 권위를 확보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상대적이고, 맥락의 존적이며, 보다 실천지적인(phronesis)²¹⁾ 가치 평가의 맥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함의도 숨어 있다.

저널리즘 초기 역사로부터 최근의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까지에 걸쳐 있는 저널리즘 혁신과 창업 저널리즘이 가져온 의미와 효과는 창업주의 저널리즘의 역사를, 가설적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준다. 첫째 시기는 저널리즘 혁신이 매스 미디어 발전과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태동과 확립에 기여한 과정이다. 둘째 시기는 첫째 시기 이후 매우 안정적인 시기를 구가하던 저널리즘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기를 겪으면서 저널리즘 혁신을 저널리즘 생존 차원에서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최근까지의 시기다.²²⁾ 셋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 뉴스 스타트업이 출현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근거하여 저널리즘 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저널리즘의 혁신과 발전에 있어서 프래그머티즘적 맥락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에서 전도된 창업주의는 뉴스 스타트업 분야가 주목해야 할 기존 저널리즘을 규정하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

저널리즘을 보다 창업적인 것으로 재발명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싱어(Singer, 2017)의 논의는 저널리즘을 창업주의적인 기업로 재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말하는 저널리즘의 창업에서 창업이란 정확히 프래그머티즘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듀즈와 마요리뱅크스

2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개념으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요구되는 지혜로서의 지식을 뜻함.

22) 저널리즘 위기기와 안정기의 구분은 피카드(Pickard, 2017)의 논의를 참조.

(Deuze & Marjoribanks, 2009) 또한 저널리스트가 보다 자유로운 행위자로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가적 이상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기존 저널리즘 규율이 약화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론에 의한 저널리즘 실천'이 점점 더 빈약한(scanty) 것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또한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 레거시 저널리즘의 '지식 생산 패러다임'의 위기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 글에서 말하는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저널리즘 담론의 빈곤화와도 의미가 통한다.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레거시 저널리즘이 직면한 위기를 바라보고,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망을 말하는 방식은 점점 더 프래그머티즘적 맥락을 끌어오고 있다.²³⁾ 저널리즘을 보다 프래그머티즘적으로 재인식하려는 시선은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미디어 창업가주의에 관한 페리에(Ferrier, 2013)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일시적인 소규모 그룹 기반 저널리즘'과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기업가 정신'을 저널리즘 교육의 새로운 초점으로 강조한다.

한국에서 어떤 뉴스 스타트업들이 나름의 성공 사례로 등장할지는 경험적으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뉴스 미디어 창업 현상을 전통 저널리즘의 틀로만 이해하기는 충분치 않다. 실제 그런 방식의 평가는 뉴스 스타트업 분야에서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가령 글로벌편집인네트워크(GEN, 2017)가 2017년 대표적인 뉴스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보고서에서 적용한 뉴스 스타트업 평가 기준의 첫 질문은 "어떤 문제를

2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의미가 뉴스 스타트업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은 레거시 저널리즘 외부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언론사나 미디어 기업 내부 혹은 간(between)에도 추진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된다. 예를 들어 팟캐스트 영역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나 시사 콘텐츠 포맷들이 지상파 같은 레거시 저널리즘 영역에 흡수되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이는 레거시 저널리즘이 자신들의 지배력 유지에 뉴스 스타트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Kurpius, Metzgar, & Rowley, 2010; Sirkkunen & Cook, 2012)을 시사한다.

해결하려고 하는가”²⁴⁾이지 ‘어떤 저널리즘을 표방하는가?’ ‘정론지를 표방하는가?’ 같은 추상화된 이론적 요소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있다. 이들 뉴스 스타트업 영역들이 기존 저널리즘을 재요청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 상황은 저널리즘과 비-저널리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저널리즘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그것이 어떤 쓸모나 기능을 서비스하는지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몰리는 프래그머티즘적 시선 전환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 전환이 실제 현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생산하고 있는지는 뉴스 스타트업들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작업을 통해 답해갈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20세기 프래그머티스트 듀이는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경험’이 수동적인 정보 습득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한 능동적 탐구의 출발점으로 이해했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경험은 점점 더 간접적인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 여지껏 저널리즘은 그러한 간접적 경험, 즉 공동체와 개인을 매개하는 중요한 정보적 도구로 지속되어 왔으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저널리즘 기능은 주로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에 위임되었다.

오늘날 레거시 저널리즘은 듀이가 말한 수동적 정보 습득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레거시 저널리즘이 생산한 뉴스 정보는 최종적으로 검증된 지식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되지만, 그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는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 저널리즘이 한국사회의 개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

24) 주요 평가 기준은 다섯 가지로 순서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경쟁기업과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수익은 어떻게 내는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의 비중은 결코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 까닭은 주류 저널리즘이 전적으로 문제라기보다 다른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그 목적과 이상 속에서 저널리즘 자체로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저널리즘의 기능과 효용에 대한 사회적 상상이 빈곤해졌다는 데 있다. 객관성, 공정성, 심층성, 기사 품질…과 같은 저널리즘을 둘러싼 주된 토의 주제들이 무용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주제들은 저널리즘과 사회의 실질적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진 않으며 사회 변동은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저널리즘 담론 안에서 뉴스 스타트업과 같은 저널리즘 창업 분야가 혁신적 사회 변동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말하려면 우선 그간의 저널리즘이 사회 변동을 제약하거나 그것과 단절되는 방식부터 해체할 필요가 있다.

뉴스 스타트업이 민주주의나 사회 개혁에 기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오로지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위해 작동하는 뉴스 스타트업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뉴스 스타트업들이 꼭 사회 혁신과 변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봉사하는 뉴스 스타트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속물적인 저널리즘이 오히려 공공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말이다. 프래그머티즘을 통해 우리는 저널리즘에 존재하는 낡은 문법의 파괴와 극복을 기획하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 뉴스 스타트업의 저널리즘적 가치나 쓸모는 순수히 이론을 통해 재단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지를 살펴가면서 따져갈 일이다. 그러나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인 로티의 커뮤니케이션관에 따르면 실험적 과정을 통하여 저널리즘의 쓸모가 끊임없이 재조직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를 로티는 교화(edification)의 개념²⁵⁾으로 제시한다. 교화의 저널리즘이란 기존 견해를 독단적으로 고수하려 애

쓰기보다 기존 견해의 불완전성을 자각하고 새 견해에 자신을 용기있게 개방하거나 새로운 견해를 직접 상상하고 창안하는 실천으로서의 저널리즘으로 말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프래그머티즘적 의미를 여기서 재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프래그머티즘적인 저널리즘 실천들이 뉴스 스타트업이라는 다소 실체와 경계가 불명확한 영역 안에서 활발히 모색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과 과제가 조금 더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광의의 저널리즘 공동체는 '진리가 자유를 돌본다'가 아니라 '자유를 돌보면 진리는 스스로를 돌본다'는 로티의 말을 되새겨 볼 수 있다. 저널리즘 제도와 정책들은 대체로 저널리즘의 '이상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저널리즘을 이론적 진리 탐구의 영역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저널리즘 창업 영역을 꼭 그런 틀로 미리 가둬놓을 필요는 없다. 이론이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자유의 확대가 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그의 충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교훈은 저널리즘의 쓸모를 밝혀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저널리즘 이론과 저널리즘 담론을 고민하는 데 필수적이다.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은 사회 혁신에 관한 한국사회의 편향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의 혁신, 외부로부터 주어진 혁신의 강압성, 그리고 혁신 담론의 패권성과 적대 구조 같은 기존의 혁신 담론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유효한 혁신 담론으로 기능할까? 사회 혁신과 저널리즘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사회 혁신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듀이나 로티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해답을 제시한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전문 지식인이나 엘리트들만의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

25) 로티의 교화 개념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쳐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교화의 의미와는 다르다.

에서 그 질문은 더 이상 소수의 것이 되기도 점점 더 불가능하다. 사회 개혁은 끊임 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관심, 꿈과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현실화될 수 있다. 사회 개조를 위한 희망과 용기의 휴머니즘적 가치,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상상력 같은 인문학적 가치, 그리고 그러한 의제와 이슈들을 논리정연하게 다룰 때 요구되는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실천이 결합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론으로 배운 저널리즘을 적용하기만 하면 자족할 수 있던 시대는 점점 더 과거가 되고 있다. 듀이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동하며 배운다’라고 강조했다. 행동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개입이 수반된다. 뉴스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저널리즘 창업 기획들은 과거의 저널리즘에 비해 그런 요소들을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과 디지털 상에서 행동, 결정, 관여 같은 실천적 가치는 피할 수 없는 저널리즘의 또 다른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 가치들이 실제 저널리즘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려면 좋은 저널리즘은 더욱 프래그머티즘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 미디어 현장에서 뉴스 스타트업 분야에 거는 기대 또한 프래그머티즘에 맞춰져 있음은 이미 감지된 사실이다(가령, 신한수, 2016).

한마디로 이 글은 저널리즘의 프래그머티즘적 전회를 요청하지만 그렇다고 전통 저널리즘의 폐기나 무용론을 주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저널리즘의 계몽적 효과, (모순어법이지만) 사실과 진실을 향한 인식론적 열정,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의욕, 진지한 저널리즘, ‘엘리트’ 저널리스트들의 엄격한 책임윤리 등은 사회 기여적인 저널리즘의 긍정적 일부들이다. 다만 그것들이 저널리즘의 전부인 양 총체화할 필요는 없다.

저널리즘 이론의 측면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이 나아갈 다음 단계 중 하나는 뉴스 스타트업 같은 신생 저널리즘 분야의 출현이나 포스트(post)-저널리즘적 징후들에 직면하여 포착되는 저널리즘의 외연 확대와 그에 수반되는 저널리즘의 재-개념/이론화 이슈다. 이는 프래그머티즘적 관점에서 저널리즘을 저널리즘 행동주의(journalistic activism)라는

확장된 개념적 틀로 재이해할 필요와 연결된다. 가령 보즈코프스키와 미첼슈타인(Boczkowski & Mitchelstein, 2017)은 저널리즘에 나타난 변화를 저널리즘 행동주의 틀로 해석할 때 그 안에서 저널리즘의 상이한 형식과 의미들을 해석하고 저널리즘과 사회가 맺는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재전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앤더슨(C. Anderson, 2013)은 저널리즘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개념적 쇄신으로서 저널리즘을 새로운 '행동 모델'로 재구상한다. 베넷(Bennett, 2005, p.203) 또한 인터넷 등장 이후 나타난 저널리즘의 변화는 사회운동의 세계에서 나타난 변화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라이프스타일 정치나 온라인 정치 참여 등 사회운동의 방식과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사회운동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널리즘은 어떤가?

끝으로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과 전통 저널리즘을 대립시키는 이 글의 의도적 구도는 기존 저널리즘 내에 작동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간과하고 그 결과 기존 저널리즘을 모조리 반-프래그머티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단순화의 위험을 안고 있음을 밝힌다. 실제 기성 저널리즘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반프래그머티즘적이었다고 규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 글의 의도는 사례를 종합하여 경험적 논리를 경험적 실재의 층위에서 구축하거나 전통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이란 개념적 구성체 둘 모두를 총체화하여 대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층위와의 길항 속에서 저널리즘 실재에 대한 능동적 개입의 추구, 달리 말해 저널리즘 실재(객관)와 저널리즘 실천(주관) 사이의 대화를 연결하는 기제를 저널리즘 실천 이념과 가치의 지점에서 재모색해보고자 했다. 그럼에도/그렇기 때문에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을 요청하는 담론이 실천적 함의를 설득력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사례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프래그머티즘적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그 실현 조건을 보다 현실정합적인 설명과 함께 보다 구체화된 언어로 밝혀야 하는 후속 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13). 訓民과 啓蒙: 한국 저널리즘은 왜 애국적인가. <저스티스>, 134권 2호, 514-533.
- 강준만 (2013). <증오 상업주의: 정치적 소통의 문화정치학>. 인물과 사상사.
- 김경만 (2015). <진리와 문화변동의 정치학: 하버마스와 로티의 논쟁>. 서울: 아카넷.
- 김민환 (2007). 한국 언론과 객관주의 보도 원칙. 임상원 외,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101~137쪽). 서울: 나남.
- 남재일 (2010). 직업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0호, 73~93.
- 박대민 (2017).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의 시대: '저널리즘 혁신' '언론사 생존' 위해 힘들지만 가야 할 길. <신문과방송>, 2017년 11월호.
- 박진우 (2012). 뉴스 생산의 유연화와 저널리스트 노동: 2000년대 한국 언론의 고용 및 노동 유연화 과정에 대한 검토.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38-72.
- 박진우 (2013).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가: '언론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인문학'의 현실과 과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특별호, 9-39
- 박희석 (2018, 5월).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실태와 청년일자리.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50, 1-24.
- 박용규 (1995). 한국기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활동의 변화과정. <한국사회와 언론>, 6, 141~174.

- 백미숙 (2011, 8월).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교육, 계몽적 역할의 역사적 구성과 내용규제: 방송가요, 방송언어,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1963~1987.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 서동진 (2011). 혁신, 자율, 민주화... 그리고 경영: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 <경제와사회>, 71-104.
- 신한수 (2016). '풀뿌리 뉴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반짝반짝. <신문과 방송>, 2017년 1월호, 32-37.
- 이유선 (2014). 로티의 정치철학. 김용준 외 <로티의 철학과 아이러니> (16-85쪽). 서울: 아카넷.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갈등 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론>, 4권 2호, 48-72.
- 임상원 (2017).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 리프먼, 듀이, 로티와 저널리즘>. 파주: 대우학술총서.
- 임정욱 (2018). <나는야 호기심 많은 관찰자>. 서울: 더난출판사.
- 정태철 (2005). 언론 전문직업인주의의 필요성: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논의.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417~454.
- 조항제 (2017).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987-2017. <언론과사회>, 25권 3호, 11-78.
- 채백 (2008).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개화기 출판.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41호, 7-40.
- 황설중 (2014). 로티의 진리론. 김용준 외 <로티의 철학과 아이러니>, (86-160쪽). 서울: 아카넷.
- 홍원식 · 이효성 (2016). 저널리즘 객관성에 대한 실용적 접근. <커뮤

니케이션학 연구》, 24권 4호, 107-125.

- Alexander, J. (2006). Cultural pragmatics: social performance between ritual and strategy, pp.29-90. J. Alexander, B. Giesen and J. Mason (Eds.), *Social Performance: symbolic action, Cultural pragmatics and ritu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erson. R, Dardenne. R., & Killenberg. G. M. (1994). *The Conversation of Journalism: Communication, Community, and News*. Westport, Conn.: Praeger.
- Anderson, C. W. (2013). *Rebuilding the News: Metropolitan journalism in the digital ag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est, J. (1989). *Images and Issues: Typifying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Bennett, W. L. (2005). Social movement beyond Borders: Understanding two eras of transnational activism. In *transnational protest and global activism*, ed. D. Della Porta and s. tarrow, 203-226.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Boczkowski, P.J. & Mitchelstein, E. (2017). Scholarship on online journalism: Roads traveled and pathways ahead. in Pablo J. Boczkowski & C.W. Anderson (Eds.), *Remaking the news: essays on the future of jorurnalism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Bruno, N. & Kleis Nielsen, R. (2012). *Survival is success: journalistic online start-ups in Western Europe*.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Carey, J. (1986/1997). *The Dark Continent of American*

- Journalism. In E. S. Munson & C. A. Warren. (Eds.), *James Carey: A critical rea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rlson, M. (2017). *Journalistic Authority: Legitimizing News in the Digital Era*. Bost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uze, M. (2014). Journalism, Media life, and the entrepreneurial society. *Australian Journalism Review*, 36(2), 119-338.
- Deuze, M. & Marjoribanks, T. (2009). Newswork. *Journalism*, 10(5), pp.555-561.
- Dewey, J. (1916/1944).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 Dewey, J. (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Oxford, England: Holt.
- Dewey, J. (1888). *Leibniz's new essays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a critical exposition*. Chicago: S. C. Griggs and Company.
- Ferrier, M.B. (2013). Media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what students should know.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ducator*, 68(3), 222-241.
- Fuchs, C. (2014). *Social Media: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 Global Editors Networks. (2017). 2018 Report: Startups to accelerate your newsroom. URL: <https://www.startupsfornews.org/wp-content/uploads/sites/2/2018/01/Startups-For-News-Report.pdf>.
- Kovach, B. & Rosenstiel, T. (2008). *The Elements of Journalism*. Three Rivers Press.
- Kurpius, D.D., Metzger, E.T., & Rowley, K.M. (2010). SUSTAINING HYPERLOCAL MEDIA: In search of funding

- models. *Journalism Studies*, 11(3), 359-376.
- Naldi, L. & Picard, R.G. (2012). Let's start an online news site: Opportunities, resources, strategy, and formationl myopia in startups. *Journal of media business studies*, 4, pp.47-59.
- Patterson, T.E. (2000) *Doing Well and Doing Good: How Soft News and Critical Journalism are Shrinking the News Audience and Weakening Democracy - and What News Outlets Can Do about It*.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RWP01-001 . Cambridge, MA: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Available at: <http://web.hks.harvard.edu/publications/workingpapers/citation.aspx?PubId=667> (consulted September 2009). Google Scholar
- Pickard, V. (2017). Rediscovering the news: Journalism studies' three blind spots. in Pablo J. Boczkowski & C. W. Anderson (Eds.), *Remaking the news: essays on the future of journalism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Prenger, M. & Deuze, M. (2017). A histor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ism in journalism. in Pablo J. Boczkowski & C. W. Anderson (Eds.), *Remaking the news: essays on the future of journalism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Rorty, R. & Mendieta, E. (2005). *Take Care of Freedom and Truth Will Take Care of Itself: Interviews with Richard Ror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rty, R. (197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rty, R.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rty, R. (1990). An Exchange on Truth, Freedom, and Politics: Truth and Freedom: A Reply to Thomas McCarthy. *Critical Inquiry*, 16(3), pp.633-643.
- Rorty, R. (1991).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Volume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rty, R. (1995). Habermas, Derrida and the functions of philosophy.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49(194), 437-459.
- Rorty, R. (1996a). Remarks on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In C. Mouffe. (Ed.).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13-18).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orty R. (1996b). Emancipating our culture in Debating the state of philosophy: Habermas, Rorty, and Kolakowski, Edited by J Niznik and J.T. Sanders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1996), p.26
- Rorty, R. (1998). *Achieving our country: Leftist thought in twentieth-century America*. Harvard University Press.
 임옥희 역 (2003). <미국만들기>. 동문선.
- Rorty, R. (1999). *Philosophy and social Hope*. Penguin Books.
- Rorty, R. (2002). *Against bosses, against oligarchies: A Conversation with Richard Rorty*. Prickly Paradigm Press.
- Rorty, R. (2006). *Take Care of Freedom and Truth Will Take Care of Itself: Interviews with Richard Ror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rty, R. (2010). Feminism, ideology and deconstruction: a pragmatist view. In Marianne Janack (ed.), *Hypat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96 - 103.
- Ryfe, D.M. (2012). *Can Journalism Survive?: An Inside Look at American Newsroom*. London: Polity.
- Schudson, M. (1981).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Basic Books.

- Schudson, M. (2008). The “Lippmann-Dewey Debate” and the Invention of Walter Lippmann as an Anti-Democrat 1985-1996.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2(2008), 1031-1042.
- Sellars, W. (1968). *Science and Metaphysics: Variations on Kantian Themes*. New York: Humanities Press.
- Singer, B.J. (2017). Reinventing Journalism as an enterpreneurial enterprise. in Pablo J. Boczkowski & C. W. Anderson (Eds.), *Remaking the news: essays on the future of journalism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Sirkkunen, E. & Cook, C. (2015). What’s in a Niche? Exploring the Business Model of Online Journalism. *Journal of Media Business Studies*, 10(4), 63-82.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Y: The Free Press.
- Ward, Stephen J.A. (2006).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First Edition: The Path to Objectivity and Beyond*. Kingston, 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Witschge, T. (2012). Changing audiences, changing journalism? In P. Lee-Wright, A. Phillips, & T. Witschge. (Eds.), *Changing Journalism*. (117-134). London: Routledge.
- Zelizer, B. (2009). Journalists as interpretive communit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0, pp.219-237.

투 고 일 자: 2018년 07월 05일

심 사 일 자: 2018년 08월 0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08월 31일

Abstract

The Meaning and Value of Pragmatistic Journalism for the Era of Entrepreneurial Journalism

YongMin Ryu

Researcher, Institute for Communications Research of Yonsei Univ.

The aim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possible meanings of pragmatistic journalism as to explore the new journalistic ideology and its value to contribute to innovative social change productively for the emerging era of reinvented journalism as an entrepreneurial enterprise. The background of this attempt is on the point that social change in Korean society can be feature more properly when it is understood not as logo-centric re-construction of society, but as reinventing new tool for social innovation. The current journalistic experiments in the field of news media start-ups, alternative media, or the other cases of news media entrepreneurialism need to accommodate more pragmatistic meaning of journalism as a useful tool for more better society into their project, no more to be bound in the epistemological essence of legacy journalism such as teleological objectivity, rigid professionalism, and the journalistic role for universal knowledge-theory production.

KEYWORDS pragmatism, journalism, entrepreneurialism, Rorty, social change, social innovation